



#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아침독서

| 글 : 한상수\*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은 도서관에 잘 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도서관에 오지 않는 현실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책과 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책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끔 책을 본다고 해도 대부분 만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심화된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기르지 못해 책 읽기가 생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아침독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나름대로 아침독서 운동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알면 알수록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소박하게라도 아침독서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해보자는 사회적 제안을 하고 싶어 일본에서 이 운동을 제창한 하야시 히로시 선생님의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아침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 청어람미디어.)

## 일본의 아침독서 운동 현황

아침독서운동은 학교에서 아침 시간에 10분 동안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각자 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는 독서 운동이다. 매일 아침 단 10분간 전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자신이 고른 책을 읽는 아주 간단한 이 운동은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88년 두 명의 교사가 시작한 일본의 아침독서운동은 현재 일본 초·중·고의 48%에 해당하는 18,740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2005년 3월 11일 일본 아침독서추진협의회 조사). 학제별 실시학교 수는 소학교 12,129개교, 중학교 5,392개교, 고등학교 1,219개교이다.

한국출판연구소의 백원근 선임연구원이 「출판저널」 2004년 12월호에 쓴 기고문을 보면 주목할 내용이 있다. 2004년도 일본의 성인 독서율은 감소했지만 학생들의 독서율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견인차로 아침독서 운동이 꼽힌 것이다.

아침독서 운동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NHK를 필두로 한 방송사, 아사히(朝日) 신문을 비롯한 신문사,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출판유통회사, 서점 등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몇 차례나 아침독서 운동과 관련한 질의를 했

\*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소장, 푸른꿈 도서관장, childlib@hanmail.net

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침독서 운동이 일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초·중·고 시절 12년간 매일 책을 읽은 일본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경쟁할 미래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전개해야만 할 운동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도 아침독서 운동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책 읽는 아이가 행복하다

미국교육과학연구소가 2002년에 발표한 '미국의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은 초등학교 때 좋은 책을 많이 읽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고 해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는 좋지 않은 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초등학교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어린이들의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 했을 때 아침독서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독서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아침독서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책을 꾸준하게 읽음으로서 책이 참 재미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 읽기가 습관화되면 그 아이는 일생을 살면서 항상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갈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컴퓨터 게임이나 TV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극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의 정서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침독서 운동의 성

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침독서 운동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생활혁명적인 성격을 가진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 운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아무런 사회적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사실이다.

### 아름다운 실천에 함께하기를

일본의 경우 아침독서 운동에 공공도서관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침독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학급문고가 잘 되어 있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공공도서관의 단체대출로 해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아침독서를 하는 학교에 학급별로 학생수만큼 도서를 단체대출해주는 방식인데 놀랍게도 매월 도서를 교체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 책 읽어주기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아침독서 운동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싶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아빠도 할 수 있다면 같이)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시간은 최소한 10분이상이면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의외로 꽤 많은 책을 볼 수 있다. 약 한 달만 해보면 그 효과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책 읽기를 실천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들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좀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